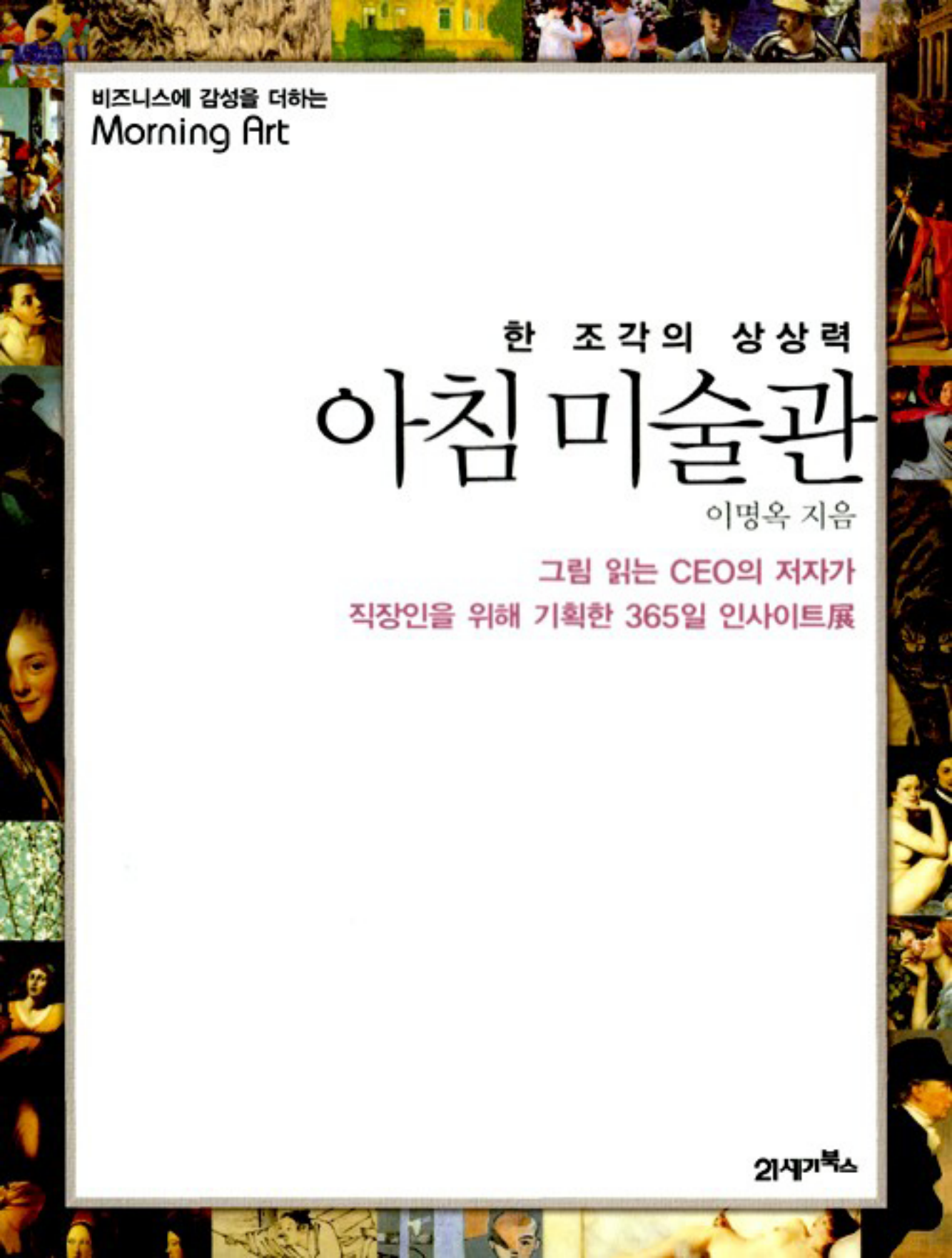




비즈니스에 감성을 더하는
Morning Art

한 조각의 상상력
아침 미술관

이명옥 지음

그림 읽는 CEO의 저자가
직장인을 위해 기획한 365일 인사이트展

21세기북스



상처의 승화

안창홍
〈가족사진 3〉
1982
종이에 유채

빛바랜 가족 기념사진처럼 보이는 그림은 한눈에 보아도 섬뜩한 기분이 듭니다. 초상화의 가장자리는 해진데다 심하게 찢기고 굵힌 흔적들이 곳곳에 보이거든요. 게다가 인물의 이목구비는 지워지고 눈과 입은 시커멓게 칠해져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눈과 입을 가진 세 사람은 마치 유령처럼 보입니다.

화가는 왜 얼굴을 참혹할 정도로 훼손시킨 가족 초상화를 그렸을까요? 상처로 얼룩진 유년기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화가는 부모와 자신의 존재까지도 부정하고 싶을 만큼 힘든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혹독한 통과의례를 치른 그는 불행한 과거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가족이라는 족쇄를 벗고 자유롭게 비상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나 그는 과거를 지우는 것은 곧 기억을 상기시킨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가족을 부정하면서 긍정하는 과정을 통해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난 것이지요. 화가에게 가족 초상화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영혼의 씻김굿이었습니다.

재일교포 소설가 유미리는 “가족의 불행과 상처를 응시하고 고통을 묘사하는 글쓰기가 나 자신을 작가로서 존재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소설에서 찾았어요. 불행한 가족사는 소설의 훌륭한 소재가 되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과거의 아픔을 어떤 방식으로 승화시킬 수 있겠어요?